

한국타이어

본사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9일 본사 창립(창립일: 1941년 5월 10일)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국내의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아트호텔 대연회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조양래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의 행사는 홍건희 사장의 약사보고에 이어, 내빈을 대표하여 민자당 정책위의장인 나용배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는데, 축배와 케이크커팅이 끝난 뒤 하객들은 주위를 돌면서 인사를 나누며 한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였다.

해외마케팅부, 판촉물 비교전시회 열어

해외마케팅부 제품·광고G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본사 교육장에서 판촉물 비교전시회를 열었다. 해외전지점(한암 포함)의 협조를 얻어 '90년 11월~'91년 3월까지 경쟁사의 판촉물을 수집하여 전시하였는데, 부문은 기브어웨이 아이템(Give-away item)으로 세라믹볼펜, 열쇠고리, 티셔츠, 가방, 태양모이며, 팝아이템(Pop item)으로는 타이어 스탠드, 달력, 포스터이고, 기프트 아이템(Gift item)인 시

계, 재털이 등과 각종 인쇄물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는 세계 타이어업체 10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우리 회사의 전략에 부응코자 개최된 것으로 미쉐린, 브리지스톤, 굿이어, 금호 등 경쟁업체의 판촉물과 당사의 것을 비교전시함으로써 광고판촉물의 자체평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박창주 사우 최우수상 받아

영등포공장은 세계 일류공장 도약과 한마음운동추진 및 '91-600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캠페인 웅변대회를 지난 3월 4일 250여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이재록 제조부장은 오수정 공장장을 대신한 대회사에서 "걸프전쟁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주변환경에 대한 대처와 현재 추진중인 세계 일류공장 도약과 한마음운동 및 '91-600작전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웅변대회에서는 영등포공장 각과에서 9명의 연사가 참가하여 열변을 토하였는데,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창주 사우(생산1과)에게 돌아갔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생산1과 박창주
- 우수상 : 생산2과 안성옥

생산2과 양병두

- 장려상 : 생산2과 김길호
- 생산관리과
- 김과승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병 초청 공장견학 실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 대전공장에서는 인근 군부대 전역대기장병을 초청해서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날 견학은 장병들이 제대로 한타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 홍보 및 현재 우리 회사의 실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술부 한마음운동 전진대회 가저

지난 3월 23일 용인 콘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부서원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조직활성화 및 한타의 기술자립의 주역으로써 정신무장을 위한 한마음 전진대회가 대전공장 기술부사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사업장을 떠난 홀가분한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진지한 대화의 장은 많은 곡해와 모순을 허물고 한타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형성시켰으며, 한마음 한뜻으로 다져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금 호 타 이 어

발명의 날, 상공부 장관상 수상

우리 회사는 지난 5월 20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제26회 발명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수특허관리업체로 선정되어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한국발명특허협회가 전 국민의 발명사상을 고취하고 발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그동안 연구원들의 1인 1발명 목표설정과 특허상을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지난해에는 국내기업 특허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사 자동차 영업부 이평헌 과장의 자녀인 이자현양(경기 호원국민학교 6학년)이 우수학생발명자상 부문에서 대한변리사회 회상상을 받았다.

우수대리점 사장단 해외견학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6박 7일간에 걸쳐 '90년도 영

업실적이 우수한 대리점 대표자 10명을 선발하여 동남아시아 3개국을 중심으로 해외견학을 실시했다.

올해로 여섯번째 실시된 '91년도 1차 우수대리점 사장단 해외견학에서는 포항지점 소속 U.R.대리점 권영자 사장이 홍일점으로 참가한 데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사장들의 합심단결로 견학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전원 무사히 귀국했다.

본사 여직원 한마음회, 수련회 열려

지난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지점 및 본사 여직원 한마음교육이 충북 보은군 소재 속리산 관광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여사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된 이번 교육은 직장여성들의 건강관리와 직장예절, 조직력개발을 위한 산악훈련,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한 여사원들은 서로 목소리를 통해서만 알고 지내다가 이 기회를 통하여 얼굴을 익히느라고 모두들 반가운 마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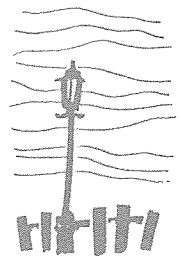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여사원들은 각자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고자 노력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우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교육일정을 마쳤다.

수원영업소 개점

지난 4월 26일 수원영업소가 윤양중 사장 이하 영업담당 중역이 참석한 가운데 개업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갔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에 총 105평의 사업장을 갖추고 영업을 시작한 수원영업소는 경기도 일원의 서비스 확대 및 판매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원영업소의 개점으로 우리 회사는 전국 21개지점, 8개 영업소의 판매망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판매량 및 M/S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성타이어

손정남 사우 우수근로자상 수상

(주)우성산업 타이어공장 생산부 생산과에 근무하는 손정남 사우는 지난 4월 2일 관내 구청에서 모범근로자에게 주는 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손정남 사우는 지난 '73년 우성타이어공장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근면성실을 생활신조로 삼아 생활해온 장기 모범근속사원으로 동료직원간에 협동단결하는 마음 자세로 생산성 향상에 남다른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에 구청장 표창을 받게 된 것이다.

온라인망 구축 대비, PC교육 실시

(주)우성산업 타이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전국 온라인망 구축에 대비하여 전 지점 및 공장 하치장을 대상으로 타이어 영업관리에 따른 전산화교육 및 사무자동화 PC교육을 5월 22~23일과 27~29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우성산업이 효율적인 영업관리를 위해 준비해 온 전국 온라인망이 6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험가동됨에 따라

실무교육 및 PC 미교육자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

우성산업은 6월부터 온라인망의 시험가동에 들어가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 가동할 예정이다.

어학실력 배양을 위한 어학교실 개설

(주)우성산업은 직원들의 어학실력을 배양하고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어학교실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어학교실은 일어 및 영어로 나누어 11개월 코스로, 영어는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50분까지, 일어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1시간씩 실시하고 있는데, 2파트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 어학교육은 직원들간에 좋은 호응을 얻어 신청자 이외의 120%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다.

우성산업에서는 면학분위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실력이 우수한 사원에게는 해외연수도 보낼 예정이다.

장미회 소식

(주)우성산업 여직원 모임인 장미회(회장: 장춘희)에서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전직원에게 향나무 부채와 결혼한 임직원에게는 카네

이션꽃을 가슴에 달아주었다.

장미회는 딱딱하기 쉬운 사무실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주었으며, 부채를 받은 직원들은 여직원들 덕택에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모두들 즐거워했다.

우성산업 산악회 도봉산 등정

(주)우성산업 산악회는 지난 5월 12일 서울의 진산인 도봉산을 등정했다. 이날 등정에는 25명의 회원이 참가하였는데, 당일 오전 9시 망월사역에서 집합, 쌍용사를 거쳐 포대능선을 타고 자은봉(해발 740m) 정상에 도착하여 준비해간 음식을 먹고 산세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천축사, 도봉산장을 거쳐 하산하여 도봉산역에서 해산하였다.

우성산악회는 각박한 현사회의 생활속에서 벗어나 자연의 신선함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앞으로는 산행의 횟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